

300-5-133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15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許均(盧奉益·盧奉姬·許마리아·許貞玉)은 치안유지법 위반 동 봉조죄로 검사의 예심청구가 1934년 12월 13일에 있었다. 許均은 1929년 경성 승인동 사립고학당에 입학 후 사회단체에 관계하고, 權友會 京東支部員 및 中央青年同盟 北區支部 집행위원으로 여성운동을 하며 공산주의에 동조하였으며, 서울고무공장 大陸고무 공장 등의 女工으로 있으면서 사상적으로 불온행동을 하였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933년 1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改悛의 정이 없이 지하운동을 하였으며, 卞洪大와 회합하고 赤色勞動조합을 조직하고자 서울고무공장 직공에게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고 파업 등의 실천투쟁을 하였다. 또, 비밀 출판활동으로 공산운동을 운동자와 협의하고 범행을 봉조하였다.
- 1934년 11월 8일 용산경찰서에서 구속취조중이라는 보고서가 있으며, 동일 許均의 청취서가 작성되었고, 情夫 盧四石과 金鍾源의 지도로 격문살포 및 조선독립과 공산화를 위해 활약하다가 1933년 1월 불기소의견으로 送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 許均의 치안유지법 위반 피의사건은 1934년 11월 20일 경기도 경찰부에서 신문 조사가 있었으며, 2회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11월 21일 3회 신문조사가 있었다. 11월 22일 증인으로 鄭季媛의 신문조사가 있었고, 24일 金月玉·柳仁順의 증인신문조사가 있었다. 11월 24일 孟桂淑·曹昌洙의 勞動爭議 선동 정황조사 청취서가 작성 되었다.
- 1934년 11월 26일 鄭泰植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金革徹의 '메이데이 前後'란 격문이 수록되어 있다. 동일 卞洪大·李元鳳·金普成·曹昌洙·金革徹의 증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27일 車小榮, 28일 白潤赫·安昌大(가명 鄭季顯·金澤根·金能善·李愚點), 28일 安昌大 등의 증인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 許均의 4회 피의자 신문조사는 11월 30일에 있었고, 5회 신문조사는 12월 1일에 실시되었다. 동일 유치장발부 호적조회와 피의자 소행조사가 있었다. 1934년 12월 4일 경기도경은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검사의 許均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는 12월 4일에 있었고, 구류장이 발부되었다. 동일 崔成浩의 증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12월 6일 鄭泰植·安昌大·金普成의 증인조사가 있었다. 許均의 2회 심문조사는 12월 6일에 실시되었고, 卞洪大의 증인 신문조사도 있었다. 7일에 崔成浩의 증인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10일에는 差押이 집행되었으며, 지문채취도 있었다.
- 1933년 12월 13일 검사의 예심청구가 있었고, 범죄사실이 기록되어 있다.